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703-968-3011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웹사이트: <https://stpaulchung.org>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마이클 버비지 주교님 성명서

올해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 국가로서 누리는 자유를 기념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선언하듯, "하느님 아래 하나 된 나라"로서 맞이하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로부터 부여받은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 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세대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신뢰" 속에서 신앙과 도덕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앙과 자유의 선물에 감사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건국 초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선함과 힘, 그리고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 구원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과 국가를 이끌어 가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깊은 믿음을 두고 이웃과 함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애 안에서 공동선을 이루어 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미국에 영원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알링턴 교구장 마이클 버비지 주교

Statement of Bishop Michael F. Burbidge on America's 250th Anniversary

On Independence Day this year we celebrate our freedom as a nation and the tremendous gift which is America's 250th anniversary as "one nation under God," as our Pledge of Allegiance declares.

We mark our national conception from the signing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Philadelphia on July 4, 1776. Our Declaration of Independence famously acknowledges that all human persons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natural and unalienable rights including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merica's founding generation sacrificed immensely, with "a firm reliance on Divine Providence," so that "we the people" could continue to honor and worship God, that Christian faith could remain at the center of public life, and with the hope that, as a country and by God's grace, America could forever be a place where self-rule, public morality, and personal virtue would rightly guide our enjoyment of freedom.

As citizens, we reflect on the blessings of our nation and our way of life, and we give thanks to God for his gifts of faith and freedom. Today, just as in our earliest days, the goodness and strength of our country and the right exercise of our freedom depend upon our willingness as people of faith to proclaim the Gospel and order our lives and our nation by the Lord's saving message. As America commemorates this momentous 250th anniversary, may we continue to trust and rely upon God, and strive to live according to what is right and just as a nation and as brothers and sisters.

May God forever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동한 다니엘 신부님 새 사목지 방문



지난 6월 24일, 본당 신자 약 20명은 새 사목지로 부임하게 된 이동한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버지니아 프레더릭스버그에 위치한 Saint Mar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Roman Catholic Church를 방문하여 새로운 사목 여정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미사 후 출발한 방문단은 Saint Mary 본당에 도착하여 본당 신부인 Fr. John Mosimann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Saint Mary 본당에는 Fr. Kevin Dansereau, Fr. Tim Courtney, Fr. Joseph Connor 그리고 부제 Alberto Bernaola가 함께 사목하고 있으며, 이동한 다니엘 신부님도 앞으로 이 사제단과 함께 본당 사목을 수행하게 됩니다.

방문 중에는 John Mosimann 신부님의 안내로 성당 본당 건물과 다양한 사목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ohn Mosimann 신부님은 이동한 다니엘 신부님의 부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고, 새로운 사목 동역자를 맞이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본당에서도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John Mosimann 신부님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본당 공동체는 새로운 사목지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이동한 다니엘 신부님의 앞날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Saint Mary 본당 공동체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 미사에 참여하는 복장의 기준

가톨릭 교회는 미사 복장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나라와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른 미사복장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회사에 가거나 어른을 만나러 갈때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가지 않듯이, 하느님을 만나러 미사에 갈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운 날씨 탓으로 미사를 참여하는 신자들의 복장이 많이 흐트러지고는 합니다. 민소매, 반바지, 짧은 치마 등의 노출이 심한 옷은 삼가해 주시고 슬리퍼나 쪼리 등 험거운 신발은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사중에는 모자를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는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해 하느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하상 한국학교 무용단 경연대회 수상



하상 한국학교 무용단이 6월 28일 뉴저지 포트리 배리모어 필름센터에서 열린 제24회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에서 중·고등부 1위(최우수상)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한국국악진흥회가 매년 개최하는 이 대회는 유치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생, 일반인 및 시니어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미국 최대 국악 행사입니다.

이번 수상은 수개월간의 학생들의 꾸준한 연습과 준비뿐만 아니라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부모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신지은: 우리 팀이 상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랍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팀은 7살부터 14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도해 주신 정원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 신지효: 우리 부문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우승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실감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저희 모두 그 점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가서 대회에 참가하고 중·고등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 시우 월슨: 1등해서 너무 좋아요. 음식도 맛있었고, 호텔방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 김지우: 친구들과 함께 학교 끝나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고 상도 타게 되어 정말 좋아요.
- 이세린: 1등 하고 먹은 짜장면은 진짜 맛있었어요!
- 김리오: 최우수상을 받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 이소원: 힘들게 연습하고 먼 길을 달려왔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 이소은: 처음 나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 김진성: 형, 친구들이랑 연습하고 대회를 기다리며 함께 놀면서 하룻밤 잔 것도 좋았어요.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는 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1등해서 상을 받으러 올라간 것이 가장 좋았어요.
- 윤선우: 열심히 연습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상을 받으니 더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 유하음: 정말 재미있고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상을 타서 너무 좋아요. 정원용 선생님, 감사합니다.
- 이주하 안나: 연습은 힘들었지만, 우리는 팀으로 함께 이겨내며 결국 1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정말 많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채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선생님과 친구들, 고맙습니다.
- 최효주: 우승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기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실을 맺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합니다. 고생하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유승아: 경연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고마워요.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착하신 목자 김대건 신부님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요한 10,11) 착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잃은 목자를 보내주시어 교회를 보살펴주십니다. 착한 목자는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그분의 사랑을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그런 착한 목자셨습니다.

김 신부님은 1836년 4월에 15세의 나이로 모방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그해 12월 고국을 떠나셨습니다. 먼 길을 걸어 다음 해 6월 마카오에 도착, 사제 수업을 시작하여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실 때까지 수고와 어려움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늘 제1독서의 즈카르야 예언자처럼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충절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믿음을 지키려는 이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환난 중에도 인내와 끈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제2독서). 또한, 성령께서는 주님께 대한 충절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복음).

김대건 신부님도 성령의 도움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혹독하게 문초하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관장께서 내가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갚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처형 직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충절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실천했던 김대건 신부님은 모든 신자들, 특별히 그분을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사제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성취에는 열을 올리지만, 자신을 내어놓고 바치는 것은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사제들이 그런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인 교황 바오로 6세가 1970년에 자신의 사제 수품 50주년을 맞아 바친 기도를 함께 바쳐 봅시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덧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닦아 보려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끝까지 항구하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고동을 같이하고, 겸손과 충실과 용기로 천주의 뜻을 실천하며, 거기서 유일한 행복을 찾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금주의 교리상식]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김대건 안드레아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 충남 솔뫼에서 아버지 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디 양반 가문이었으나,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1801년 신유박해 때 몰락하였습니다.

김대건 안드레아는 1836년 열여섯 살에 사제가 되고자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1844년 부제품을 받은 다음,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중국으로 건너 갔습니다. 1845년 8월 17일 상하이의 진자상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고 조선에 돌아온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서해 해로를 통하여 선교 사제가 입국할 통로를 개척하려다가, 1846년 6월에 체포되어 여러 차례 문초를 받고, 9월 16일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1949년 11월 25일 비오 12세 교황이 그를 한국에서 전교하는 모든 성직자의 수호자로 선포하였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4년 5월 6일 서울에서 한국 순교자 103위를 시성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정하상 바오로와 함께 한국 교회의 대표 성인으로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순교자를 현양하기 위하여 과거 대축일이었던 7월 5일에 신심 미사를 드리되 성대하게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1. 2차 현금 안내

- 다음 주일 (7월 12일)에는 아프리카 지역 교회의 사목 활동 지원을 위한 교구 2차 현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중 제 14주간 일정 안내

- 7월 5일 (일)
 - K of C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여성 19차 꾸르실료 환영회 (오후 4시)
- 7월 10일 (금)
 - 영어권 형제 모임 (저녁 8시)
- 7월 11일 (토)
 - 유아 세례 (오후 2시)

3. 연중 제 15주간 일정 안내

- 7월 12일 (일)
 - 바오로회 가정 모임 (오전 11시)
 - 꼬미시움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 단체장 회의 (오전 11시 30분)
 - 학생 전례부 모임 (오후 12시)
- 7월 17일 (금)
 -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 7월 18일 (토)
 - 성체 조배 (오전 9시), 미사 (오전 11시 미사)

4. Battle of the Servers

- 복사단을 위한 본당 간 친선 축구 경기, 게임 등을 통해 다른 본당 복사들과 만나고 버비지 주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사입니다. 복사단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7월 9일 (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 장소 : St. Leo Parish, 3700 Blenheim Blvd, Fairfax, VA
- 신청 : 6월 28일 (일)까지 복사단 카톡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5. 7월 유아 세례 안내

- 일시 : 7월 11일 (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생 전례부 모임

- 일시 : 7월 12일(일) 오후 12시
- 장소 : 친교실 B-3, 성전
- 새롭게 전례 봉사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기존 전례 봉사 학생들과의 친교를 위한 모임입니다. 모든 학생 전례부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유미 세바스티아 (703-626-1370)

7. 독서자 해설자 전례 교육 안내

- 일시 : 7월 14일(화), 7월 17일(금) 저녁 7:30분 미사 후
- 대상 : 현재 독서자와 해설자 및 향후 봉사 희망하는 분들
- 앞으로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독서와 해설을 하실수 있습니다.
- 그동안의 시스템을 완전히 고칠 계획이오니 과거는 잊어주시고 새로 만들 시스템에 적응하셔서 독서와 해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8. CLC 이냐시오 영성 침묵 피정 안내

- 피정 주제 :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 지도 신부님: 김우중 스테파노 (예수회)
- 일시 : 2026년 8월 2일 (일) 오후 4시 - 8월 6일(목) 오후 3시
- 장소 : 9270 Loyola Retreat Rd. Faulkner, MD
Loyola Retreat House (로올라 피정의 집)
- 내용 :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침묵과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 문의 : 이데레사 (571-224-2888)
유안나 (703-956-0510)
- 피정 신청을 문자로 남겨주세요.

9. 재속 가르멜 대침묵 연피정 안내

- 일시 : 8월 7일 (금) 오후 3시 - 8월 9일 (일) 오후 2시
- 장소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620 Michigan Ave NE, Washington DC
- 참가비 : \$300
- 지도 신부님 : 배하정 다니엘
- 문의 : 류기주 안나 (703-635-6837)

10. 캐나다 성지 순례 신청 안내

- 일시 : 2026년 10월 13일 (화) - 16일 (금) (3박 4일)
- 신청 : 선착순 30명, 사무실
- 캐나다에 있는 성요셉성지, 성안나성지 중심으로 성지순례 가실 분들 신청 받습니다.
- 순례 비용은 1,700불이며 그중 예약금은 700불입니다.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 문의: 김정숙 율리안나 (443-540-4680)

11. 생명의 은총에 감사드리는 미사 및 묵주기도

- 모든 신자 여러분을 생명의 은총에 감사하는 미사 및 묵주기도에 초대합니다.
- 미사는 버비지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며, 미사 후에는 주교님과 함께 인근 낙태 시설 앞에서 생명 보호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신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7월 18일 (토) 오전 8시 30분
- 장소 : St. James Catholic Church, 905 Park Ave, Falls Church, VA

12. 성모회 판매 안내

- 오늘 성모회는 봉사자들의 꾸르실료 참가 및 봉사 일정으로 성모회 판매는 없습니다.

13. 성당 시설 사용 안내

- 성당 시설을 새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신심 단체 및 각종 모임은 반드시 사전에 성당 사무실에 사용 신청을 제출하여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이나 사용 허가 없이 성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시설 운영과 단체 간의 협조를 위해 반드시 사무실을 통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6월 28일 (연중 제 13주일)	
봉헌금 -----	\$7,849.00
교무금 -----	\$6,625.00
교무금 (신용카드) -----	\$5,435.00
감사 헌금 -----	\$200.00
2차 헌금 -----	\$4,033.00
온라인 봉헌 -----	\$1,850.00
합계 -----	\$25,992.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6년 7월 9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7월 10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7월 12일 (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 미사강론
2. CPBC 가톨릭 뉴스
3. 성소 특집: 나를 찾는 시간
4. 성경 여행 스케치: 김혜윤 수녀

교중미사 예물봉헌	
7/5 이번주	페어팩스 1구역
7/12 다음주	페어팩스 2구역 1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small>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small>	